

# 《東省交餘集》 解題

鄭 玉 子\*

이 책은 朝鮮 22대 왕인 正祖의 文集을 간행하면서 그 작업에 참여했던 15學士의 詩作들을 모아서 정리한 共同詩集이다. 東省이란 奎章閣의 內閣을 別稱한 것이고 그 곳에서 交歡하며 그 사이에 서로 주고 받은 詩歌를 모아 놓았다는 의미로 책이름을 《東省交餘集》이라 한 것이다. 그들이 모인 목적은 자신들을 키워준 선왕 正祖의 御製 詩文을 정리하기 위해서였던 바 그 결과물이 《弘齋全書》로 집성된 것이다. 시기는 1813년(순조 13)부터 1814년(순조 14)까지이고 供職의 여가에 서로 唱酬한 古律 長短歌詩로 群居하며 言談한 글이라고 序文에서 밝히고 있다.<sup>(1)</sup> 일을 끝내고 刊印한 것이 1814년 3월인데 序文에 362일 걸렸다고 한 사실로 미루어보면 시작은 1814년 2월쯤이라 생각된다. 이 《弘齋全書》의 刊印작업을 끝내고 그 부산물로서의 이 책이 刊行된 것은 1814년 7월로 추측된다.<sup>(2)</sup>

참여한 15學士의 명단은 이 책 말미에 「鑄字所題名錄」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들은 본직 이외에 규장각의 직함인 閣職을 겸직하고 있다. 그 명단을 도표로 작성하던 다음과 같다.

姓 名	官 職	奎章閣職銜	生 年(나이)	號	字	本 貫
金 載 瓚	領 議 政	原 任 提 學	丙 寅(69)	海 石	國 寶	延 安
金 祖 淳	領 敦 寧	檢 校 提 學	乙 酉(50)	楓 阜	士 源	安 東
沈 象 奎	兵 曹 判 書	原 任 提 學	丙 戌(49)	斗 室	稚 教	青 松
南 公 轍	左 參 贊	提 學	庚 辰(55)	思 穎	元 平	宜 寧
徐 榮 輔	判 敦 寧	提 學	己 卯(56)	竹 石	慶 世	達 城
朴 宗 慶	禮 曹 判 書	原 任 提 學	乙 酉(50)	敦 巖	汝 會	潘 南
李 存 秀	京 畿 監 司	直 提 學	壬 辰(43)	金 石	性 老	延 安
金 履 喬	弘文館副提學	直 提 學	甲 申(51)	竹 里	公 世	安 東
朴 宗 薰	大 司 成	檢 校 待 教	癸 巳(42)	豈 溪	舜 可	潘 南
李 魯 益	禮 曹 參 議	檢 校 直 閣	丁 亥(48)	灘 樵	君 受	德 水
李 龍 秀	左 承 旨	檢 校 待 教	丙 申(39)	糶 館	子 田	延 安
李 光 文	弘文館應教	檢 校 直 閣	戊 戌(37)	小 華	景 博	牛 峰
鄭 元 容	弘文館副應教	直 閣	癸 卯(32)	經 山	善 之	東 萊
朴 綺 壽	弘文館修撰	檢 教 待 教	甲 午(41)	完 谷	眉 皓	潘 南
李 鶴 秀	弘文館正字	待 教	庚 子(35)	丹 阜	子 阜	延 安

위의 15學士 중 金載瓚·金祖淳·沈象奎·南公轍·徐榮輔·李存秀·金履喬 등 중견인물

\* 서울대학교 人文大 副教授

(1) 《東省交餘集》(이하 交餘集으로 약칭) 南公轍 序文

(2) 《交餘集》의 金祖淳 序文끝에 甲戌孟秋라 한 사실로 미루어 알 수 있다.

들은 正祖대에 抄啓文臣에 뽑혀 교육받은 이들로 純祖때의 公卿大夫가 모두 抄啓文臣 출신이라는 평가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위 표에서 관직은 1814년 6월 당시의 것이지만 뒤에 이들이 모두 권력의 정상에 오른다. 純祖 당대에 文衡을 거친 이는 金祖淳·徐榮輔·南公轍·沈象奎·金履喬 등이고 領議政까지 오른 이는 당시의 영의정이었던 金載瓚외에 南公轍·沈象奎가 역시 純祖朝에 그 자리에 오르고 가장 연소하였던 鄭元容은 憲宗때에 領相이 된다. 李存秀와 朴宗薰은 左議政, 金履喬는 右議政에까지 진급되었다. 이외에 徐榮輔·朴宗慶·李魯益·李光文·朴綺壽·李龍秀·李鶴秀 등도 모두 판서 이상의 벼슬에 진출하였으니 이들 15學士는 純祖때 권력의 핵심이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당시의 정치상황에 관하여 간단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1800년 正祖가 죽고 僻派의 支柱였던 慶州 金氏 貞純王后가 대왕대비로서 수렴청정을 행하면서 무자비한 숙청을 단행하였다. 내세우는 명분은 「關異端 扶正學」이라는 斥邪論이었지만 실은 正祖일대에 세력을 키워온 時派에 대한 정치적 보복 및 자파세력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공포분위기 조성과 정적 타도가 그 목적이었으니 南人 時派중에 천주교 신자가 다수 있었으므로 이를 빌미로 辛酉 邪獄을 일으킨 것이다. 때에 老論系 時派를 포함한 少論 및 南人들이 대거 숙청되었으나 時派였던 金祖淳은 老論의 영수였던 金昌集의 玄孫이라는 가문의 후광을 업고 선왕인 正祖가 어린 세자였던 純祖를 그에게 부탁한 遺命에 힘입어 외롭게 純祖의 후견인으로 고군분투하던 중 純祖의 外家, 즉 純祖의 생모인 綏嬪 朴氏의 친정아버지인 朴準源과 그의 두 아들 朴宗輔·朴宗慶 등의 지지를 받아 자기 딸을 純祖妃로 納妃하는데 성공한다. (1802년 純祖 2)

이로부터 2년 후인 1804년 貞純王后의 撤簾이 이루어지고 15세의 純祖가 親政을 행하게 되고 뒤이어 1805년 貞純王后가 死去하자 安東 金氏의 勢道政治는 그 기반을 다져간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純祖의 外家도 강성한 세력을 떨치고 있었으니 상기 純祖의 두 처삼촌 중 朴宗輔는 일찍 죽었지만 朴宗慶은 吏曹·兵曹·戶曹의 判書 및 御營大將 등의 요직을 거쳐 軍國의 機務로부터 貢賦의 管轄에 이르기까지 권력을 장악하여 그 위세가 당당하였다.

이에 1812년(純祖 12) 11월 大司憲 趙得永이 상소하여 朴宗慶이 戚里임을 빙자하여 威福을 농단하고 회뢰를 탐한다고 論斥하였다. 純祖는 無實한 말로 重臣을 모욕하였다는 죄명으로 趙得永을 진라도 진도군 金甲島에 유배시키는 한편 朴宗慶 역시 楊州牧使에 外補시켜 버렸다.<sup>(3)</sup> 뒤에 박종경은 복관되었지만 지난 날과 같은 위세를 부리지는 못하였다. 이와 같이 朴氏세력이 도태되고 나자 정권은 國舅 金祖淳의 손에 완전히 장악되었다. 이러한 권력의 추이과정에서 西北道の 洪景來亂이 일어나고 이를 진압한 직후에 《弘齋全書》의 완간을 서두르게 되니 1813년 2월경부터 1814년 3월에 일을 마무리짓게 된다.<sup>(4)</sup> 이는 安東金

(3) 《純祖實錄》卷 16 순조 12년 11월 丙子·己卯·庚辰·壬午條

(4) 《弘齋全書》의 간행에 대해서는 拙稿「《東省交餘集》에 대하여」(金哲俊博士 華甲紀念 史學論叢 1983)를 參考할 것. 이 해제에 역시 위 논문에 의거하였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위 논문을 參照.

門의 金祖淳을 중심으로 자신들을 키워준 선왕 正祖의 글을 정리한다는 추모의 분위기를 배경에 깔고 진행되었던 일부 소론 가문을 포함한 老論系列을 재정비하는 특수한 목표가 이 작업에 병렬적으로 포함된 것이라고 이해된다.

序文은 金祖淳과 南公轍의 것이 自筆로 되어 있고 金履喬의 것은 印刷體인데 金履喬는 이 서문에서

이 일을 더불어 한 사람은 모두 15사이며 首尾 362일이 걸렸는데 일의 처음부터 끝사이 校讎之暇에 서로 왕복하여 詩의 各體 약간편을 얻었는데 經山(鄭元容의 號) 僚友가 散軼함을 아깝게 여겨 거두어 편집하여 가지고 내게 물으니 내가 대답하기를 무릇 天下之事란 今일에 행하고 明日에는 찾는 것이다. ……오늘의 일을 잊을 수 없다면 오늘의 자취를 어찌 거두지 않을 수 있겠는가. 또 나와 자네가 諸公을 따라 後日 闕下에 모여 詡詡(大言壯談하는 모양)하며 서로 좇아 잠시도 떨어지지 않는 일이 장차 있다면 이는 오늘의 일이 있음으로써이리라. ……오늘의 勝事가 후일의 尋釋(되풀이해서 행함)이 될 것이니 經山 그는 힘써 부지런히 하였다.

고 하여 鄭元容이 힘써 모아 자신과 의논하여 간행하게 된 경위를 밝히고 있는데 특히 주목을 요하는 대목은 「나와 자네가 諸公을 따라 후일 闕下에 모여 詡詡하며 서로 좇아 잠시도 떨어지지 않는 일이 있다면 이는 오늘의 일이 있음으로써이리라.」는 것이다. 즉 이 작업을 통한 결집력의 과시가 《交餘集》으로 표출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2卷 1冊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권 38장으로 76장이며 상기한 바 세 사람의 序文이 8장이며 부록으로 題名錄이 1장이다. 속표지에 「甲戌季夏活印」으로 되어 있으나 金祖淳의 序文엔 「甲戌孟秋」로 되어 있으므로 1814년 7월에 刊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卷 첫머리에는 1814년 3월 22일 《弘齋全書》 간행 직후에 이를 기념하여 여기 참여한 學士 진원이 金祖淳의 詩韻에 따라 한 수씩 기념시를 지어 실었고 책 끝머리, 즉 2卷의 끝에는 《弘齋全書》 간행 직후 계속사업으로 列聖御製를 續印하는 작업을 벌여 同年 6월 20일 告完하고 金祖淳의 선창에 따라 지은 기념시들을 모아 놓았다. 여기에는 徐榮輔·金履喬·朴宗薰·李龍秀·鄭元容·李鶴秀·李光文·李魯益·李晚秀 등 열 사람이 참여하고 있다. 기타의 시들은 모두 그때 그때 주변의 사물이나 사건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 金祖淳이 先唱하고 그의 韻에 次韻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詩體는 거의가 五言이나 七言의 近體詩이다. 그러나 金祖淳을 비롯한 長僚들은 닷새에 한 번 정도 內閣에 들어가 자문의 역할을 담당하고 실무를 짚는 층이 담당하였던 듯하다.<sup>(5)</sup>

참고로 참여한 士大夫의 人的 事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이외의 사항)

金祖淳(1765~1831)

肅宗때의 領議政이며 老論 四大臣의 한 사람이었던 金昌集의 四代孫. 府使 金履中의 아들. 純祖妃인 純元王后의 아버지로 永安府院君에 被封됨. 安東金氏의 外戚勢道政治의 기초

(5) 《交餘集》卷 2 p. 37ab

를 마련함. 正祖의 廟庭에 配享. 諡號는 文忠, 石室書院·玄巖書院에 祭享.

金載瓚(1746~1827)

正祖때 영의정을 지낸 金煜의 아들로 純祖廟庭에 配享됨. 諡號는 文忠.

沈象奎(1766~1838)

正祖때의 禮曹參判 沈念祖의 아들. 1834년 영의정에 오르고 耆老所에 들어감. 文章과 筆法에 있어 당시 제일인자로 꼽힘. 만여권을 수집한 장서가로도 알려짐. 諡號는 文肅.

南公轍(1760~1840)

英祖때 文衡을 지내고 正祖의 스승이던 南有容의 아들. 朴趾源의 弟子로 北學派의 한 사람이며 당대 제일의 문장이었다. 純祖때 領議政에 오르고 純祖의 廟庭에 配享됨. 諡號는 文獻.

徐榮輔(1759~1816)

正祖때의 文衡 徐有臣의 아들. 그 역시 純祖때의 文衡으로 문장과 글씨에 능하였다. 達城 徐氏의 少論家門. 諡號는 文憲.

朴宗慶(1765~1817)

純祖의 外祖 朴準源의 아들. 純祖의 外叔으로 한때 권력을 잡았으나 곧 밀려나 金祖淳에게 권력을 빼앗겼다. 諡號는 文肅.

李存秀(1772~1829)

英祖때의 영의정 李天輔의 손자이며 判書 李文源의 아들. 左議政에까지 올랐으며 詩文에 능하였다. 諡號는 文翼.

金履喬(1764~1832)

丙子胡亂때의 斥和大臣이며 우의정이던 金尙容의 6대손. 觀察使 金方行的 아들. 右議政에까지 올랐고 글씨를 잘 썼다. 純祖의 廟庭에 配享. 諡號는 文貞. 金祖淳의 族叔으로 핵심인물이다.

朴宗薰(1773~1841)

朴崑卜의 4대손. 李思觀의 外孫. 郡守 朴參源의 아들. 左議政까지 지냈다. 經書·禮樂·律令·山水·書藝·詩文에 두루 능한 博雅之士로 여러 학사들의 추앙을 받았다. 諡號는 文貞.

李魯益(1767~1821)

조선중기의 四家중 한 사람인 澤堂 李植의 후손이며 宋時烈的 제자로 숙종때 左議政을 지낸 李端夏의 玄孫. 正祖때의 영의정이던 李秉模의 아들로 자신의 居第인 稷下山房에서 詩筵을 자주 열고 있다. 예조판서까지 지내고 1821년 평안도 관찰사로 나가 임지에서 죽었다.

李龍秀(1776~ ?)

李存秀·李鶴秀 등과 더불어 조선중기 四家中 한 사람인 月沙 李廷龜의 후손들로 老論 名家인 延安 李氏를 대표하는 이들이다. 李龍秀·李鶴秀는 형제사이로 李文源의 아들들이 다.

李光文(1778~1838)

18세기초 老論學界內의 思想論爭인 湖洛論爭에서 洛派의 巨頭였던 陶庵 李緯의 증손이며 戶曹判書 李采의 아들. 刑曹·工曹·吏曹判書를 거쳐 右贊成에 이름. 詩文에 뛰어나고 諡號는 文簡.

鄭元容(1783~1873)

仁祖때의 영의정이던 鄭太和의 6대손이며 敦寧府 都正 鄭東晩의 아들. 憲宗때 영의정에 까지 오름. 金祖淳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哲宗 즉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91세까지 장수하여 高宗때까지 살아 남아 安東 金門의 오른팔 역할을 한다. 글씨에 뛰어나고 諡號는 文忠. 代表的인 少論 名家인 東萊鄭氏 家門이다.

朴綺壽(1774~1845)

右副承旨 朴宗臣의 아들. 吏曹判書를 지냈고 判義禁府事 등을 거쳐 1843년에 耆老所에 들어감. 諡號는 孝文.

이상 15學士들은 당대의 名門出身으로 鄭元容과 徐榮輔를 제외한 열세 사람은 모두 老論의 華胄顯閥을 대표하는 이들이다. 鄭元容은 東萊 鄭氏의 少論名家이고 徐榮輔는 達城 徐氏의 少論名家이니 金祖淳을 정점으로 하는 老論계열의 재정비 과정에서 일부 少論名家를 회유 내지 흡수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詩의 唱酬라는 고차원의 형식을 빌어 金祖淳이 核心 내지 中心人物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동년배인 沈象奎로부터 楓臯先生으로 존칭되며 연소배로부터는 「閣下」(楓閣)로 경칭되어 모든 詩遊·船遊에 중심이 되고 있다.

흠어진 詩作品을 수집·정리·편집하는 등 실무를 담당할 사람은 가장 연소하였던 鄭元容이었고 刊行을 뒷받침한 이는 金履喬이며 1卷은 주로 1813년의 작품이고 2卷은 1814년의 작품으로 보인다.

이 책을 통하여 19세기 전반 정계 핵심인물들의 결집과정을 읽을 수 있고 아울러 그들의 詩作을 통하여 그 성향을 가늠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과 동시에 19세기 전반 조선 士大夫들의 文藝의 아취가 넘치는 풍류생활의 실상에도 접할 수 있을 것이다.